

사법연수원은 다양한 교육기능이 중심이 되는 법교육의 메카로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조계에는 큰 지형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사법연수원은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축적한 교육 노하우를 외부에 전파하여, 다양한 교육 기능이 중심이 되는 법 교육 메카로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력의 중심에 있는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을 만났다.

1956년생
서울대 법과대 졸업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 11기 수료
울산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
(현)사법연수원 원장(2015년 2월~)
(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2015년 2월~)



Q. 사법연수원의 구체적인 활동과 업무를 소개해주시시오.

A. 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원한 이래 45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인 양성기관이자 유일한 법관연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부장검사 내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현직 법관(검찰) 교수가 연수생 20명의 지도교수가 되어 2년의 연수생활을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법연수생은 예비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체득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10명의 법관 교수가 제주대를 제외한 전국 24개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여 실무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선발 인원의 축소에 따라 사법연수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입법관을 포함한 일반 법관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효적인 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기존의 연수생 수습 외에 다양한 교육기능이 중심이 되는 법 교육의 메카로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Q.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균형적 시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연수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A.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법조윤리 수업을 편성하여, 모범이 되는 전·현직 법조인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거나 연수원생들끼리 이에 관한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지속적 복지시설 봉사연수'를 도입한 바 2015년에 46명의 사법연수원생이 고양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의 멘토로서 활동하였습니다.

한편, 사법연수원도 법조인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며, 2015년 하반기부터 법관연수에서 '인문학 테마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분야 법관연수로 남녀 성별의 시각 차이, 소수자 보호 등에 관한 주제로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고, 2016년도에는 인문교양학을 통합적으로 성찰하여 바람직한 법관의 시각과 자세를 되새길 수 있는 '법학 콘서트'를 새롭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Q. 인천지법 판사, 울산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0년 넘게 법원에 재임하시며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판결에 힘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으로 재임하시던 과정에서 특히 유념하셨던 사항은 무엇인지요.

A. 사건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패소한 당사자라도 절차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성과가 미흡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서울지방법변호사회로부터 '2014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변호사가 담당 법관을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으로 평가(100점 만점)한 결과, 5명의 판사와 함께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 우수법관 평가에서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이었고, '우수법관' 6명의 평균점수는 96.3점이었다.

Q.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공정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국민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유권자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민의를 나라의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목소리'는 'voix'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투표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못마땅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사람 됨됨이와 공약을 잘 살펴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고, 나아가 당선자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 반영하는 등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1중재부장(1998년~1999년) 및 경기중재부장(2002년~2005년)으로 재임하셨습니다. 재임 기간에 기억에 남으신 일이나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인지요.

A. 2003년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모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일본 대사와의 회담 보도에 오보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신청했던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심리과정에서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회담 녹음테이프를 중재부장인 저 혼자 들어보고 오보임을 확인한 후 정정보도를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해당 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오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기조라, 대통령이나 정부부처의 조정신청이 많았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Q. 복잡한 갈등 상황이나 중요한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마음을 정화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특별히 마음을 정화하는 노하우를 말씀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원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책과 음악 감상을 통해 머리를 가볍게 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조인과 전임 중재부장으로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특히 인터넷 포털을 매개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역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포털사업자가 보도 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저의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됨으로써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선례적 판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국민의 인격권 등을 보호할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여 발전된 형태의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언론중재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검색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와 구제를 위하여 삭제청구권이나 접근차단권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된 개정안이 성문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청년실업이나 세계적인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소년들>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섬부른 위로나 조언이 오히려 상처가 될 만큼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미국 3대 방송사 NBC에서 가장 잘나가는 코미디언이었던 코난 오브라이언이 하루아침에 다른 동료에게 그 자리를 뺏기고 폐인과 같은 생활을 하던 중, SNS에서 기타 하나 들고 한 스탠드 업 공연이 인기를 끌게 되고 이후 NBC "코난 쇼"를 통해 화려하게 재기하게 됩니다. 코난 오브라이언이 2011년 다트머스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실망스러운 일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잘 다루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백 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처절한 실패가 진짜 당신을 만나게 해 줄 겁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은진(홍보팀 차장보)